추억이 담긴 교수님의 철학이야기
'철학했기에 행복했노라'

윤용택 교수님

입시와 취업 경쟁에 지친 청년들이 현재의 고통과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우리 사회를 헬(hell)조선이라 지탄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볼 때 덴마크는 우리보다 잘 살지만, 부탄은 우리보다 훨씬 못하다. 그런데 그 두 나라는 행복의 나라라 불린다. 그 두 나라에서는 누구를 붙잡고 물어봐도 불행하다는 이들이 거의 없다. 대체로 행복은 주관적이어서 개인차가 많지만, 불행은 객관적이어서 사회적 영향을 많이 받는다. 정치는 국민의 피눈물을 닦아주는 것이기에, 사회구조적 측면에서 나오는 고통은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한다. 2016년 겨울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세계사에 유래 없는 촛불시민혁명이 전개되고 있다. 새봄엔 우리나라가 헤븐(heaven)한국으로 거듭 나기를 소망해본다.

나는 본래 인문학과는 거리가 멀었다. 중학시절엔 밤하늘의 별을 쳐다보고, 동식물을 관찰하고, 과학실험을 하고, 수학문제 푸는

추억이 담긴 교수님의 철학이야기
철학했기에 행복했노라

걸 무척 좋아했다. 아마 제때 대학에 들어갔으면 철학과가 아닌 물리학과나 천문학과를 갔을 것이다. 하지만 다행스럽게 대학입시에 실패하는 바람에 재수하면서 철학과를 택하게 되었고, 지금도 철학자의 길을 걷고 있다. 과학을 좋아했지만 철학이 중요하다는 말에 과학과 철학을 동시에 공부할 수 있는 과학철학을 공부했다. 학생과 대중들에게 철학을 강의하고, 제주에 사는 덕분에 제주학을 연구하고, 이 시대의 한 사람으로서 사회변혁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어서 참으로 행복하다.

플라톤은 세 가지 이유 때문에 행복했다고 한다. 남녀차별이 심하던 시대에 남자로 태어났고, 문화적 번영을 누리던 아테네에서 살고, 현자인 소크라테스 밑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것이다. 소크라테스는 처음에는 이전 철학자들처럼 자연철학에 관심이 많았다. 하지만 그는 '인간은 왜 선(善)이 좋다는 걸 알면서도 선을 행하지 못하고 악이 나쁘다는 걸 알면서도 악을 행하는가에 대한 답을 알면 자신뿐만 아니라 친구들도 보다 좋은 인간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에 인간에 대한 탐구로 관심을 돌리게 되었다. 만일 소크라테스가 그런 전환을 하지 않았다면, 아마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도 없었을 것이고, 서양철학과 기독교사상의 뿌리가 되는 그들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접하게 되는 철학, 과학, 종교, 예술 등은 지금과는 많이 달라졌을 것이다. 소크라테스가 자연에서 인간으로 철학적 탐구 대상을 돌린 것은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할 정도로 인류에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다.

자연에 푹 빠져 있던 청소년 윤용택은 '물질적인 데에만 관심있는 이 시대에 현대판 소크라테스가 필요하다'는 아놀드 토인비의 한 마디 때문에 철학의 길을 걷게 되었다. 재수하면서 우연하게 중고서점에서 펼쳐본 [미래를 살다]라는 책이 과학도에서 철학도의 길로 돌아서게 하였던 것이다. 사실 어린 시절 윤용택은 모든 게 늦되었다. 태어나서 일주일이 지나서야 눈을 떴고, 초등학교 들어가서야 겨우 걸음마를 시작했으며, 초등학교 이학년을 마치고서야

▌철학과 취업 그리고 추억

한글을 읽기 시작했다. 아버지를 일찍(5살 때) 여의고, 집안이 가난한데다 몸도 약하고 머리도 별로였던 것을 감안하다면 요즘 말로 흙수저는커녕 아예 수저 없이 태어난 셈이다. 집안이 어렵다 보니 또래보다 중학교를 일 년 늦게 갔고, 대학도 재수를 하였다. '삶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말이 있지만, 나는 거기다가 '삶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완주하라'는 말을 덧붙이고 싶다. 남들보다 뒤처지거나 늦다고 해서 초조하거나 조바심 내지 말고 자기 페이스대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꾸준히 가라는 것이다.

나는 1959년생인데 1980년에 대학을 갔으니 동기들보다 2년이나 늦은 셈이다. 게다가 대학 다니는 동안 집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던 나는 하루하루 살아남는 게 급선무였다. 대학 4년 동안 내일은 없고 오늘만 있었고, 미래는 없고 현재만 있었다. 오늘을 넘기는 게 과제였고, 어떻게 대학을 졸업할 거냐가 가장 큰 숙제였다. 따라서 대학을 다니면서 졸업 후 진로를 걱정하는 것은 사치였다. 대학 4년은 내 인생에서 마지막 공부라 생각했다. 그렇기 때문에 학과를 가리지 않고 듣고 싶은 강좌는 다 듣고 읽고 싶은 책은 맘껏 읽으려고 노력하였다. 하지만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는 대학 4년 내내(대학원까지 치면 10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다. 할부책장사, 자물쇠장사, 생선장사, 포장마차, 은행창구안내, 은행야간경비, 입주과외, 조교 … 참으로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했다.

그리고 군부독재를 무너뜨리고 민주사회로 나아가야 하는 시대상황은 대학생으로서 역할을 외면할 수 없게 하였다. 민주화를 갈망하면서 학내외 시위에도 줄곧 참석하였다. 무능하고 부패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외치는 2016년 현재 상황은 1980년과 1987년 상황과 유사하다. 1980년 봄을 대학가에서는 이른바 '서울의 봄'이라 불렀다. 겨울공화국으로 불리던 박정희 유신독재체제가 부하의 총탄으로 1979년 10월 무너졌지만, 신군부인 전두환이

추억이 담긴 교수님의 철학이야기
철학했기에 행복했노라

12.12구데타를 일으켜 집권을 획책하던 시기였다. 신입생이던 1980년 봄 대학가는 '유신잔당 물러가라' '전두환은 물러가라' '신현확[국무총리]은 물러가라'라는 구호가 전국을 휩쓸었다. 전두환, 노태우 등 신군부 일당은 1980년 5.18 광주민중항쟁을 희생양으로 삼아 새로운 군부독재를 시작하였고 우리나라는 다시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가 허용되지 않는 동토의 왕국이 되었다. 5월 17일 계엄령과 휴교조치가 내려짐으로써 수업은 두 달 남짓했지만, 실제로 수업을 받은 것은 한 달도 못 되었다.

군복무를 마치고 1982년 2학기 복학하니 학교상황은 예전과는 전혀 달랐다. 이른바 짭새라 불리는 사복경찰과 프락치들이 강의실, 도서관, 교정 곳곳에 있으면서 학생과 교수들을 감시하고, 학생들은 감시망을 피해 민주화 투쟁을 해야 했다. 도서관이나 교정에서 학생들이 '군부독재 타도하자'를 외치다가 사복경찰에게 붙잡혀 재적당하고 군대에 끌려가든가 투옥되는 일이 비일비재하였고, 많은 선배들, 동료들, 후배들이 학교를 떠나야 했다. 숨이 컥컥 막힌 나머지 '민주주의 만세'를 외치며 분신하거나 투신하는 민주열사들이 늘어났다.

박정희 유신독재와 전두환 군부독재 시기엔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뽑지 못하고 체육관에서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들이 99.9% 찬성으로 대통령을 선출했다(1972년 8대 대통령 박정희[투표 2,359명, 찬성 2,357표, 무효 2표], 1978년 9대 대통령 박정희[투표 2,578명, 찬성 2,577표, 무효 1표], 1980년 11대 대통령 전두환[투표 2,525명, 찬성 2,524표, 무효1표]). 마침내 최루탄이 난무하는 가운데 1987년 6월 대학생과 시민들의 민주항쟁으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이끌어내었다. 하지만 당시 민주인사였던 김영삼과 김대중의 분열로 13대 대통령 선거에서 어부지리로 신군부 2인자인 노태우가 당선되면서(노태우36.6%, 김영삼28.0%, 김대중27.0%, 김종필8.1%) 우리사회의 민주화는 또 다시 멀어지게 된다.

우여곡절을 거치며 형식적으로는 정치민주화가 이뤄졌지만, 점

▌철학과 취업 그리고 추억

차 재벌이 권력.언론.시장을 장악하는 자본독재사회가 되어갔고, 빈부의 차는 더욱 심해졌다. 요즘 금수저니 흙수저니 하는 말이 괜한 말이 아니다. 상위 10%가 전 자산의 75%를 차지하고, 하위 50% 자산을 다 합쳐도 전체의 1%도 안 되는 극심한 양극화 사회가 된 것이다. 더 이상 경제민주화를 미룰 수 없다. 세계 13위 경제규모 정도가 되면 굶는 사람이 없어야 하고, 돈 없어 학교 못 다니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먹거리, 일자리, 주거, 교육 등은 국가에서 책임져야 한다. 이제는 우리나라는 성장 대신에 성숙된 사회로 가야 한다.

우리가 일하는 것은 밥벌이를 위한 것이 아니다. 1인당 국민총생산 2만 5천달러 시대에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 일한다는 것은 국격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일은 자기능력을 보여주고 자아실현을 위한 것이다. 어떤 일을 하든 훌륭한 성과를 내려면 선천적 능력도 중요하지만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즐기는 것은 더 중요하다. 따라서 진로를 정할 때는 자기가 ①좋아하고(적성) ②잘하고(능력) ③하고싶고(욕망) ④해야 할(의무) 것을 고려해야 한다. 이 가운데 네 가지가 다 들어맞는 일을 하는 사람은 가장 행복하겠지만, 행복하게 살려면 직업을 선택할 때 위의 네 가지 가운데 적어도 두세 가지는 맞아야 한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학생들 중에 자신이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하는 지, 뭘 하고 싶은지, 뭘 해야 할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선진사회에서는 중학생 때 그것들을 파악하고, 학구파 학생은 대학진학을 위한 일반계 학교를 가고, 공부보다 다른 것에 취미가 있는 학생은 그것을 배우는 직업학교로 진학한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는 공부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무조건 대학에 진학하고 있다. 이것은 개인과 가정뿐만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한 상황은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한다. 그리고 국영수로 중심으로 학생의 능력을 평가하는 교육제도가 개선되지 않는 한

학생도, 선생도, 부모도 행복할 수 없다. 국영수 못한다고 다른 공부를 못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다. 공부 못해도 다른 능력을 살려서 얼마든지 행복한 인간이 될 수 있는데도 우리는 공부 못하면 마치 인생 전체를 실패한 것처럼 비하하고 있다.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을 이루더라도 행복하지 못하다. 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남의 뜻대로 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내가 좋아하고, 잘하고, 하고 싶은 일을 찾아야 한다. 그것을 찾기 위해서는 많은 직간접 경험이 필요하다. 꿈을 찾기 위해서는 다양한 세계를 경험하고, 여행을 많이 하고, 교양서를 많이 읽고, 교수와 많이 상담하고, 동료나 선배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혼자서도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 대학 1,2학년에는 그것을 찾고, 3,4학년이 되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면 한다. 자신이 정말 좋아하고, 잘 하고, 하고 싶은 것을 찾아서 그것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컴퓨터 게임을 하는 것보다 즐겁다. 그리고 취업을 걱정하지 말고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 내공을 쌓고 실력을 키우자. 자신이 채용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을 채용할 것인가를 물어보라. 자신을 당당하게 추천할 수 있다면 된 것이다.

그런데 행복도 일자리도 개인의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 콩 심은 데 콩이 나려면 콩이 싹틀 수 있는 환경이라야 한다. 개인의 꿈이 이뤄지려면 사회적 뒷받침도 있어야 한다. 따라서 적어도 대학생이라면 우리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적극 참여해야 한다. 어떤 일을 하든 열심히만 하면 아무런 걱정 없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 학비와 생활비 걱정하지 않고도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는 사회, 굳이 대학을 다니지 않아도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열심히 하면 먹고사는 데 지장이 없고 자녀교육과 노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 직업에 귀천이 없고 남녀가 평등한 사회, 장애인 차별이 없는 사

회 … 그런 사회를 유토피아나 천국이라 이야기하지 말라. 그것은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본 사회일 뿐이다. 그런 사회는 누가 만드느냐고 묻지 말라. 사회의 주인은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요즘 매주 토요일에 열리는 촛불집회에 중고등학생들이 '이게 나라냐'라고 외치며 많이 참여하고 있다. 그들은 대한민국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몸으로 깨닫고 있다. 그런 그들에게서 우리 사회의 희망을 본다.

일단 철학과에 왔으니까 철학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한다. 철학공부는 꼭 철학자나 철학교수가 될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다. 보다 깊이 생각하고 보다 넓게 생각하는 훈련은 생각할 줄 아는 이는 모두가 해야 한다. 이 글을 읽는 친구들에게 철학을 잘할 수 있는 몇 가지 팁을 주려고 한다. 우선 하늘에서 뚝 떨어진 철학은 없기 때문에 철학에 흥미를 갖기 위해서는 왜 그런 철학 그런 사상이 나왔는지 시대적 문화적 배경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 그 철학이 나오게 된 이유를 알면 그 철학이 한결 재미있다. 둘째는 철학적 문제들을 우리(자신)의 문제로 만들어라. 수업시간에 배우는 동서고금의 어느 철학들을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들과 연결해볼 경우 철학은 더욱 흥미 있게 될 것이다. 셋째 모르는 철학적 개념이 나오면 철학사전을 뒤져라, 그게 안 되면 최소한 위키백과라도 검색해보라. 모르는 개념을 사전에서 찾으면 더 어려운 개념이 등장한다고 멈추지 말고 더 찾다보면 어느 순간 개념의 맥락이 잡힐 것이다. 넷째 선배나 교수가 추천하는 철학사를 한 권 택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정독해보라. 혼자 힘들면 선배들과 함께 공부하고 그 경우에도 모르는 개념 나오면 사전 찾는 걸 잊지 말라. 다섯째 학교 강의에만 의존하거나 만족하지 온 오프라인 철학강좌를 들어라. 요즘 인터넷에서 좋은 인문학 강좌가 많고, 수준 높은 동서고금 철학강의가 이뤄지고 있다. 수업시간에 충족되지 못한 철학적 욕구들을 충족하게 될 것이다. 여섯째 철학의 유용성에 확신을 가져라. 철학은 보다 깊이

생각하고 보다 넓게 생각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철학공부를 열심히 해놓으면 창의적이고 유연하게 사고할 수 있어서 어떤 일(직업)을 하든지 도움이 된다.

'철학'의 '철'자도 모른 채 어쩌다가 철학과를 택했다. 하지만 철학을 공부하게 된 것은 내 인생에 가장 큰 행운이었다. 철학의 길을 걸었기에 행복했다. 다시 태어나도 이 길을 갈 것이다.